

## 협회소식\_kira news

## 이사회

## ■ 제11회 이사회

2008년도 제11회 이사회가 지난 11월 25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건축문화재단' 설립 추진전략의 건, 건축사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협회의견 제출의 건과 부의안건으로 KIRA-AIA 양해각서 체결 추인의 건, 일반회계 운영자금 차입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문화재단' 설립 추진전략의 건
  - '건축문화재단' 설립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되, 세부 내용은 관련위원회에서 검토키로 함.
- 제2호 : 건축사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협회의견 제출의 건
  - 기술사의 건축사보 삽입문제 등을 좀 더 검토·보완한 후 국토해양부와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 협회 공식의견을 제출키로 함.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KIRA-AIA 양해각서 체결 추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일반회계 운영자금 차입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현재까지 차입된 자

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작성하여 내년 예산편성시 반영키로 함.

- 차기 년도부터 예산집행시에는 분기별로 예산운영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기구(위원회 등)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 위원회 개최 현황

## ■ 긴급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장 합동 회의

긴급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장 합동회의가 지난 12월 4일 KT인재개발원 304호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제사업 관련 금융위원회 의견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공제사업 관련 금융위원회 의견에 관한 건
  - '보증공제' 근거법을 마련을 위한 '건축사법개정'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함.

## ■ 제5회 법제위원회 2분과 회의

제8회 법제위원회 제2분과회의가 지난 11월 1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감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관한 건, 건축물 하자관련 연구용역에 관한 건, 감정업무 진행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감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관한 건
  - 건축설계·감리 PQ제도개선 TF팀 위원 구성은 각 위원이 한명씩 추천하여 7명 이내로 구성(11/26일까지)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자문회의는 11월28일(금) 개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물 하자관련 연구용역에 관한 건

-동 연구용역의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는 김상호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며, 김상호, 김담옥(서울건축사회 감사), 김영수(서초구 건축사회 회장) 회원 등과 의 간담회를 통해 정리하기로 함.

• 제3호 : 감정업무 진행에 관한 건

-감정업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강사는 법무대학원 교수 및 법원담당판사)

▷10주 교육예정 (8주 교육, 2주 오리엔테이션, 종강)

▷외부강사 3~4명[법학대학원교수, 담당판사] 내부강사[법원감정인원 명단 확보 ('09.1월~2월중) 후 결정]

▷교육 참가비용 : 유료(교재비)

▷세부내용 : 추후마련

#### ▲기타사항

• 2009년도 법제도 추진사업 계획안을 일부 수정하여 재경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소요예산을 일부 수정

• 법제위원회 워크샵을 당초 12월4일~5일에서 12월11일~12일로 변경하기로 함.(사유: 협회임원 및 위원장 워크샵 일정과 겹침)

• 알기쉬운 건축법령 제작·발간에 관한 건  
-동 지침서를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발간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계획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진행하기로 함.

#### ■ 제11회 법제위원회

제11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건  
-개정안중 대부분의 조문에 동의하였으며, 일부개정안 중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농가건축, 가설건축물과 건

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하는 조문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제12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성료

제12차 한·중·일 건축사협의회가 지난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일본의 미에현 이세시에서 개최됐다.

이세시의 컨벤션센터인 SUN ARENA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APEC 건축사의 각국 현황’과 ‘국제적인 실무를 위한 핸드북’을 각국이 발표하고 토론했으며, 주최국이 정한 ‘역사 관광 자원을 가진 도시, 지역의 재생’이라는 주제에 맞게 각국의 건축사가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또한 각국의 젊은 건축사가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한·중·일 3국은 민간건축교류의 활성화와 상호간에 활발한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협의했다.

‘한·중·일건축사협의회’는 1997년 1월 대한건축사협회와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중국전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가 교류협정을 체결해 시장개방에 대비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방안을 비롯한 각국의 건축계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항 등을 다루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다음 협의회는 내년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88쪽의 ‘보고서-제12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를 참고하기 바란다.

#### 2008 가을 건축실용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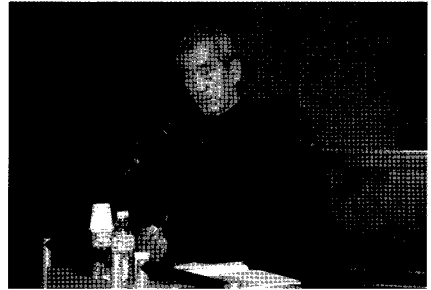
첫 번째 ‘건축사진의 촬영기법과 의미’ 개최

대한건축사협회는 보다 내실 있는 사무소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2008 가을건축 실용강좌’의 첫 번째 행사를 지난 11월 26일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첫 번째 강좌는 임정의 작가(청암건축연사진연구소/경기대 건축대학원 겸임교수)의 ‘알기쉬운 건축사진 촬영’이란 주제로 건축실무자, 건축과 대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관심 속에 열렸다.



2008가을 건축실용강좌 전경



강의 중인 임정의 작가

임정의 작가는 강좌에서 “카메라의 테크닉적인 부분은 책을 보거나 장비를 다루다보면 향상될 수 있으나, 빛과 기후 등과의 조화가 필요한 촬영에 대한 기술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건축은 환경성과 지역성에 근거를 두고 존재하는 만큼 여러 형태들의 표현에서 사진이 갖고 있는 위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현장조사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사진의 기록과 표현은 건축사의 얼굴과도 같다”는 등 건축사진 촬영에 대해 알기 쉽게 강의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2008 가을 건축실용강좌’의 두 번째 이야기는 12월 3일(수) 같은 장소에서 ‘건축사업무와 관련한 건축분쟁과 법률적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김주덕 변호사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건축과 연관된 다소 민감한 부분인 ‘법’에 대한 강좌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제도팀  
(02-3415-6833~4)